

9월 11일(월) / 시1-5편

▶**내용요약:**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심을 보여준다. 2편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위임과 사역을 설명하는 예언시이다.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면서 지은 시로 환란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4편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묘사한다.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질문:** 다윗은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모든 원수의 뼈를 치고 이어 악인의 무엇을 꺾으셨다고 하는가?(3편)

▶**생각하기:**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가운데 시편 3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3:6) 사랑하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피난을 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두려워 않는다고 고백을 한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3:8)라고 외친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9월 14일(목) / 시14-17편

▶**내용요약:** 14편은 하나님이 없다하는 어리석은 자의 생활과 그 결과, 이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볼 수 있다. 15편은 여호와와 장막에 머무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묻고 설명한다.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받은 은총과 축복들을 노래한다. 17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로 자신의 정직함을 탄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는 기대와 확신으로 마친다.

▶**질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노래하는가?(14편)

▶**생각하기:** 16편에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16:3)고 고백한다. 이 말씀은 **신앙공동체의 유익함**을 보여준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은 누구인가?**

9월 17일(주일) / 시26-30편

▶**내용요약:** 26편은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한다. 27편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때 빛, 구원, 능력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을 노래한다. 심지어 부모도 자신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점을 확인한다. 28편은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위협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

9월 12일(화) / 시6-9편

▶**내용요약:** 6편은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며 겪는 극심한 고통들을 표현한다. 7편은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억울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성도의 지혜임을 알려준다. 8편은 창조물을 통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찬양한다. 9편은 승리의 찬송시로 불리는데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8편)

▶**생각하기:**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8:4)라고 고백한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 양을 치던 목자 시절부터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도우셨음을 간증하는 것이다. 다윗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보는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자!!!

9월 15일(금) / 시18-21편

▶**내용요약:** 18편은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던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이다. 19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를 7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계시에 대해 알려준다.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로 승리를 노래한다. 21편은 20편에서 드린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다.

▶**질문:** 다윗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는 두가지는 무엇인가?(19편)

▶**생각하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8:1)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재앙의 날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임을 기억하고 그 분의 도우심을 노래한다. 29편에서 다윗은 사남고 무서운 폭풍우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노래한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30편은 다윗이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변화시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질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가?(30편)

9월 13일(수) / 시10-13편

▶**내용요약:** 10편은 9편에서 시작된 시의 후반부로 저자의 슬픔과 호소를 통해 고난에 처한 하나님 백성의 심정을 잘 표현한다. 11편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심을 노래한다. 12편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구원을 찬양한다. 13편은 다윗이 고난의 시기에 쓴 시로 낙담과 비통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안식으로 마감한다.

▶**질문:** 시편 11편에서 정직한 자는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가?(11편)

▶**생각하기:**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악인은 권모술수를 써서 세상에서 행통하는 반면, 의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으로 확신하며 노래한다. 외롭게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며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9월 16일(토) / 시22-25편

▶**내용요약:**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찬양하는 예언시로 고난 당하는 자의 탄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록된다. 23편은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임을 확인한다. 25편에서는 다윗이 고난 중에서 깨우치는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인도함을 받는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내가 사망의 ()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23편)

▶**생각하기:**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과거 양을 치던 목자 생활을 상기하며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일상에 비추어 다윗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교사이신 하나님! 간호사이신 하나님! 복지사이신 하나님! 전문가이신 하나님! 목회자이신 하나님!

▶**생각하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30:11)라고 한다. 자신이 행통하여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기에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근심했었지만 오히려 인생의 내리막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고 한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